

□ 서평

Klaas Runia,

The Present-day Christological Debate\*

England : I. V. P, 1984, pp. 120.

김 호 남  
(신대원 3년)

I. 저자 및 내용 소개

저자 Klaas Runia 교수는 호주 Geelong의 Reformed Seminary에서 조 직신학 부분의 교수로 봉직하다가 화란 Kampen의 개혁신학교에서 실천신학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국제 기독교 고등교육연맹 회장직도 맡고 있으며 Karl Barth's Christology 등의 현대신학에 관한 다수의 저서를 쓴 개혁주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다. 본서는 그렇게 큰 양의 대작은 아니지만 현대신학에서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기독교론 논쟁에 대한 제 흐름을 간결하고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지침서라 할 수 있다. 본서는 모두 9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대의 기독교론 이해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K. Barth를 들고 있으며 그후에 R. Bultmann과 역사적 예수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리고 전통적인 기독교론의 한계를 넘어가는 두 명의 개신교 신학자의 견해와, 세 명의 카톨릭 신학자들의 전통적 기독교론에 대한 포기, 그리고 또 세 명의 개신교 신학자들의 전통적 기독교론에 대한 포기의 입장을 기록하면서 기능론적 기독교론과 본체론적 기독교론의 대체현상을 설명하지만 결국 저자는 전통적인 칼세돈의 입장에서 기독교론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II. 본서의 핵심적 문제

문제의 제기는 19세기의 인간중심주의 신학에 대한 K. Barth의 그리스도 중심주의 신학으로 시작되는데 발트가 예수 그리스도도의 성육신을 설명하면서 공재적 본질(anhypostatos)과 내재적 본질(enhypostatos) 등의 추상적

\* 편집자주 - 본서는 서평자에 의해 "현대 기독교론 연구"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었음(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인 용어로 성육신 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그후의 R. 볼트만의 비신화화 신학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을 비신화화 시켜야 한다고 하여 후기 볼트만 학파의 논쟁에 불을 붙였는데 그들은 모두 예수의 부활사건을 강조하는 어떤 실존적 의미만을 추구했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예수의 인격을 거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W. Pannenberg와 J. Moltmann에 이르러서는 완전하게 전통적 기독교론과는 다른 양상을 드러내게 됨을 볼 수 있다. 즉 위로부터의 기독교론<sup>1)</sup>보다 아래로부터의 기독교론<sup>2)</sup>을 선택하게 됨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성경의 제한된 언어를 초월하여 서슴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며 볼트만은 동일 본질이라는 개념을 인성을 위한 배경으로 전락시키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들은 전통적 기독교론을 좀 과격하게 혹은 인위적으로 발전시킨 - 긍정적으로 평한다면 - 부류이다.

계속해서 저자는 전통적 기독교론을 아예 포기해 버리는 급진적 부류의 신학자들을 카톨릭에서 3명, 개신교에서 3명을 소개하고 있다. 그들은 Piet Schoonenberg, Edward Schillebeeckx, Hans Küng 등의 카톨릭 신학자인데 이들의 특징은 예수의 신인 양성론이나 성육신교리 등에 독특한 해석을 취한다. 예를들면 "인성속에 신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참 인성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성육신의 전 존재에 대해서도 여자적으로 전존재성을 받을 것이 아니라 재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같은 계열에 서있는 개신교 신학자들은 Ellen Flesseman과 J.A.T. Robinson과 H. Berkhof 등이 있다. 이들의 주장 역시 대동소이한데 이들은 위로부터의 기독교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아래로부터의 기독교론의 보충적 요소로 전락시켜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E. 플레스만같은 여자신학자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서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또한 벌코프도 니케아와 칼세돈 고백을 거절하며 예수를 "완전하게 언약된 인간, 새로운 종말론적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들의 급진적 신학자들의 기독교론은 아래로부터의 기독교론이라 할수 있는데, 그것은 본체론적 기독교론에 반대되는 기독교론적 개념으로서 기능적 기독교론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적 기독교론의 요체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우리에게 어떤 일을(구속) 하셨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무엇을 행하셨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가? 를 묻는 기독교론이다. 즉 나사렛에서 태어나 약한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의 메시아적 과업이 그를 구주가 되게 하셨기에 우리가 그를 믿는다는 식의 신앙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과연 성경적

인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저자는 전통적인 칼세돈 선언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다. 칼세돈 선언의 네가지 부정구문 "혼동됨이 없고, 변화됨이 없고, 구분됨이 없고, 분리됨이 없다"는 것을 통해 alpha privantia가 생기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고백되어온 신성과 인성의 두 줄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동일본질에 대한 전통적 고백이 오히려 성경적 기독교론임을 강조함으로 필을 놓고있다.

### III. 평 가

전술한 새롭고도 급진적인 기독교론적 경향을 분석해보면 세 가지로 지류가 있는데 첫째, 주석적 작업의 결과로 생긴 부류와 둘째, 1~2C 상황에 따른 신앙고백을 20C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셋째, 오늘날은 기능적으로 모든 것을 사고해야 한다는 사고의 지류를 따라 나온 것이라 할수 있다. 아무튼 본서는 개신교에서 대하기 어려운 카톨릭 신학자들의 신학적 입장을 살펴볼 수 있어서 무척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 기독교론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놓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대별해 놓은 구성이 한눈에 들어오며 특별히 결론이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칼세돈 고백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하는 점이 눈길을 끈다.

그러나 몇가지 보충했으면 하는 것은 책의 전체적 구성이 양성교리와 성육신이라는 두가지 분석기준 때문에 혼란이 생기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아쉬운 점은 전통적 기독교론에 대한 상세한 주석적, 성경신학적 설명없이 다른 경향에대한 비평만 있어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개혁주의적 기독교론의 기초가 있는 사람이라면 현대 서구의 급진적 기독교론의 경향을 두루 살피는데 일조하리라 생각된다.

1) 위로부터의 기독교론은 전통적인 성육신교리를 말한다.

2) 이것은 역사적 예수연구의 결과 생겨난 기능론적 기독교론의 출발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